

태풍 비껴간 제주 '불볕더위' 기승

제9호 태풍 '레끼마'도 중국行... 제주 영향 없을 듯 도내 전 지역 폭염특보... 제주시는 보름째 열대야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에 이어 제9호 태풍 '레끼마'도 제주를 비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레끼마는 이날 오후 3시 현재 타이완 타이베이 동남동쪽 약 43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km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 중심기압은 930hPa, 최

대풍속 초속 50m, 강풍반경 400km로 강도가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태풍 레끼마는 중국 대륙을 따라 이동하면서 제주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주와 가장 근접하는 11일 오후 3시 중국 푸저우 북동쪽 약 320km 부근 해상에 위치해 태풍의

위험반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태풍이 비껴가면서 제주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이다. 8일 제주의 낮 최고기온은 제주시 34.7℃, 한림 34.5℃, 서귀포 31.7℃, 성산 31.9℃, 구좌 33.1℃를 기록하는 등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제주 산지를 제외한 전지역에는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제주시 15일, 서귀포 13일, 고산 12일 등 열대야도 지속되고 있다.

기상청은 "폭염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보건과 농업, 축산업 등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낮에는 농작업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작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장마는 평년 32일보다 8일 짧은 24일간(6월 26일~7월 19일)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기간은 짧았지만 강수량은 475.3mm가 기록돼 평년 398.6mm보다 많았고, 특히 2015년(398.6mm) 이후에는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했다. 송은범기자

"항일 예술에는 시효 없다" 제주민예총, 日 정부 규탄

제주민예총(이사장 강경호)은 8일 한국민예총과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항일예술에는 시효가 없음을 천명한다"며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온전히 이뤄지는 그날까지 항일 독립의 정신으로 촘촘한 춤을 추며, 풍물꾼은 북을 치며, 시인은 시로, 노래하는 이는 노래로 싸워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시작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100년이 되는 해에 그것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일본은 제2의 경제보복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응한 단순한 처사를 넘어 오랫동안 준비해온 남북 분단 고착화의 길을 획책하는 하나의 장기적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진선희기자



해바라기 배경으로 '찰칵' 8일 제주시 함덕 서우봉을 찾은 관광객들이 해바라기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상국 수습기자

전력사용량 최고치 100만kW '눈 앞'

7일 오후 6시 95만8000kW... 당분간 기록경신 이어질 듯 제주전력거래소 "공급 예비율 28.1%... 수급 문제 없어"

연일 밤낮으로 이어지는 폭염과 함께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를 맞으면서 제주지역 전력사용량이 최고치를 경신했다. 실제 전기사용 인구가 늘면서 사용량 또한 비례적으로 상승, 앞으로도 기록 경신 가능성이 크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는 7일 오후 6시 기준 제주의 전력수요는 지난해

8월 6일의 94만9000kW 보다 9000kW 많은 95만8000kW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제주의 전력사용량 최고기록은 지난해 1월 26일 오후 7시에 경신한 95만kW였다.
제주의 경우 2015년 2월 겨울철 최대 전력 수요가 한여름의 기록을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주시 북부를 중심으로 10일째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제주전역의 기온이 뿔뿔 끊어오르며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여기에 1일 관광객 기준, 지난 5일 가장 많은 4만9745명이 제주를 찾으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했다.
이와관련 전력거래소 제주지사는 최대전력수요 발생 당시 전력공급 예비율은 26만9000kW, 예비율은 28.1%로, 전력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백금탁기자

주유취급소 불시 단속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도내 대량위험물시설 7곳과 주유취급소 248곳을 대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8

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폭염으로 인해 주유소 등에서의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총 29건의 주유취급

소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25%가 여름철에 일어났다.
단속대상은 위험물 저장 취급 안전관리기준 위반 유무와 정기점검 적정실시 여부 등이다. 송은범기자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 환경영향평가 협의 무효"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과 제주·광주환경운동연합, 제주·광주녹색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6월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 대한 동식물 제조사 결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및 부실 근거들을 명확히 확인하고 보고서에 담았다"며 "환경청은 거짓임이 분명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 부실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오늘의 날씨와 생활

8월 9일 금요일 음 7월 9일 (1물)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0%	제 주	0%
20%	성 산	0%
0%	고 산	0%
20%	서귀포	20%

주간예보

내일	☀ 구름 많음	26/32℃
모레	☀ 구름 많음	26/32℃

전통시장 갑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 7
한림민속오일장	4, 9
세화민속오일장	5, 10
함덕오일장	1, 6
고성오일장	4, 9

맑음

제주도는 맑고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다. 아침 기온은 26~27℃, 낮 최고 기온은 31~33℃로 예상돼 무더울 것으로 전망된다. 산지에서는 낮 한 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 이 있겠다.

☀ 해돋이 05:51	🌙 달뜨기 14:28
🌅 해질 19:27	🌄 달지기 00:27
🌧 물때 만조 05:15	🌊 간조 12:08
19:31	

생활·안전 기상정보

☠️ 식중독지수 위험	☀️ 자외선지수 매우 높음
-------------	----------------

■ 통계청 2019년 2분기 서비스업 생산·판매 분석 소매·면세점 '선전'... 대형마트 '고전'

전국적으로 소비 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있지만 제주지역은 관광객의 도움으로 소매판매 및 면세점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형마트의 매출은 편의성·접근성, 온라인 쇼핑 선호 등의 이유로 소비자들의 소비 성향이 바뀌면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2분기(4~6월)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 따르면 편의점이 나 중·소형 마트에서 이뤄진 소매판매액은 제주와 서울 등 4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12개 지역이 모두 감소했다.

제주도의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2015=100.0)는 137.2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8.0보다 9.2p 상승했다. 특히 면세점은 228.1로 지난해 2분기 188.5에 견줘 39.6p 상승했다. 올해 1분기도 212.2로 2015년에 견줘 2배 증가하는 등 줄곧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슈퍼마켓이나 잡화점 및 편의점에서 이뤄진 소매판매액지수도 올해 2분기 128.4로 지난 1분기 117.7과 지

난해 2분기 127.3보다 모두 올랐다. 이처럼 면세점이나 중·소형마트, 편의점에서의 매출 증가 이유는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올해 2분기 제주지역 대형마트의 판매액지수는 89.9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0에 견줘 10.1p 줄었다. 지난해 3분기 107.7에 이어 4분기 94.1로 급락한데 이어 올해 1분기도 91.3을 기록하며 하향세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사랑으로



제주 양배추 자조금 회원을 모집합니다!

제주형자조금	양배추의 수급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가·제주특별자치도·농협·생산자단체·유통인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금	
자조금사업 범위	수급안정, 유통구조개선, 수출활성화, 소비촉진 홍보, 농가교육 등	접 수 처
접수 기간	2019. 8. 1 ~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주 시 : 한림·한경·고산·애월·하귀농협 • 서귀포시 : 대정·성산일출봉농협
접수 방법	자조금 가입 및 납부동의서 제출(가입금 100,000원 납입 포함)	대 상
		양배추 재배 농업인, 영농법인, 유통인

양배추 재배 농업인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제주양배추연합회 설립추진위원회

제주농협·양채류제주협의회

| 문의 | 제주양배추연합회 설립추진위원회 사무국(720-1364), 해당 지역농협

참여 협조

- 주요 채소 재배면적 신고 적극 참여 ⇒ 참여 농가 인센티브 제공, 미신고 농가 정책사업 제외 등 패널티
- 월동채소류 품목별 10% 줄이기 실천 ⇒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비 등

- 목장용지(초지) 내 월동채소류 등 농작물 재배 금지 ⇒ 적발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
- 월동무, 마늘, 양파 재배농가는 정부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참여 ⇒ 면적조절, 가격보전기능